

환 · 경 · 계 · 소 · 식

포항시 환경신문고 효과 만점

경북 포항시가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128'에 시민들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지난해 시민들이 '환경신문고 128'에 신고한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는 1천225건으로 2002년 보다 25.6%인 25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접수된 사항 중 위반사실 미확인 등 75건을 제외한 1천150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 했다.

신고한 내용은 자동차 매연이 1천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음, 수질 및 폐기물 178건 등이다.

환경부「CI」개발

환경부에서는 대 국민 접근성 제고 및 환경부 전 직원의 소속감 고취 등 응집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시행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CI개발 심의회」를 구성·운영함과 아울러 환경부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환경마크, 재활용마크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CI를 심볼 등 시각적 상징요소로서 21세기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정기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의 핵심 가치(Core Value)를 추출한 후 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CI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청, 재활용품 수거 변경 홍보

대구 달서구청은 재활용품 수거, 운반 및 선별 처리

업무의 민간위탁 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면수거가 문전수거로 방법변경이 됐다는 것 등을 구청 홈페이지와 구 공보지 등을 통해 실시된다.

민간위탁 품목은 종이, 고철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주)녹색자원과 (주)대한실업이 성서권과 월배권을 담당하게 된다.[대구신문]

전주지방환경청 2년연속 종합만족도 1위

전주지방환경청이 2년 연속으로 환경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방문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주지방환경청이 종합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윌드리서치에 의뢰해 1차(6월~2일 7월4일)와 2차(10월6일~12월6일)로 나눠 '민원인 편의제공 정도' '민원인 접근용이성' '담당직원의 태도' '민원처리내용의 공감도' 등을 조사했다. 특히 전주 지방환경청은 지난 2002년에도 환경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년연속 만족도 수위라는 영예까지 안았다.

용인시, 생활쓰레기 위탁관리 실시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기흥읍 및 5개동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 1월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등 5개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지역과 수지단독주택의 13만세대에 대한 생활쓰레기 위탁관리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역은 기흥읍, 구성읍,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6개 읍·동으로 확대된다. [중부일보]

작년 최고 시민운동가는 문규현 신부

시민운동가들이 뽑은 2003년 최고의 시민운동가로 문규현 신부가 선정됐다.

시민단체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시민의 신문(대표 이형모)이 지난해 12월 16~23일 전국의 시민운동가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민금방조제 건설 반대 '삼보일배(三步一拜)'를 이끈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은 각각 9.7%와 4.7%의 지지를 얻어 나란히 최고의 시민운동가 1위와 2위에 올랐다.

새민금 반대운동은 지난해 최고의 시민운동에도 선정됐고, 차세대 시민운동가로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8.2%의 득표율로 1위에 뽑혔다. [연합뉴스]

경북도, 친환경에너지 7개 사업 추진

경북도는 올해 친환경에너지 7개 사업(사업비 653억원)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먼저 민자사업(580억원)으로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2MW급 풍력발전기 24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 남구 대보면 호미곶에 750KW급 풍력발전기 3기를 올 하반기까지 완공하고, 울진군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울진군내 유기농업 엑스포장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문경군 문경새재에 태양광전지 가로등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울진군내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울릉군에 소형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겸용시설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상수도 요금 동결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동결된다.

방폐장 로드맵 마련

방폐장 유치사업 관련 워크숍이 고건 총리 주재로 지난 1월 8일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강현욱 지사가 참석, 산자부·행자부·과기부 등 5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수석·민정수석 등과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새로운 유치지역 발굴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만드는 것으로 부안사례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과 국민적 신뢰회복 방안 등이 포함됐다.

태안 환경관리사업소 성적표 만점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 끝에 문을 연 충남 태안군 환경관리사업소가 친환경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태안군에 따르면 수도권 환경관리업체인 ㈜자연종합환경(대표 기연서)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차례 군 환경관리사업소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결과, 24개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배출 허용기준(600~200ppm)을 크게 밑돌았으며, 수은(Hg)과 페놀, 벤젠 등의 8개 항목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매월 1차례 환경관리사업소 매립장 침출수의 수질을 검사

환 · 경 · 계 · 소 · 식

한 결과에서도 27개 항목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이 사업소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는 정상 가동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는 데다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저감공법 등 첨단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진군, 수질관리 주민 감시단 창립

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지사 (지사장 문성완)는 지난 12월 9일 강진군 도암면 석천마을에서 『석문저수지 주민 수질관리 감시단』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석문저수지 주민 수질감시단은 수혜면적(150ha)에서 생산되는 도암RPC브랜드 쌀의 품질을 보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수질정화 행사를 갖고 상시 수질 오염 감시활동을 가질 계획이며 전체 수혜민이 환경감시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청정 농산물 생산 고장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KEED) 개발

환경부는 12월 29일 앞으로 국내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환경단체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환경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약 500여개의 국내의 환경교육 활동자료가 주제별, 활동대상별, 관련교과별, 활동소요시간, 활동장소별로 구분, 키드(KEED,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Database)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웹 사이트(<http://www.keed.net>)에 탑재되어 학교의 교사는 물론 많은 환경단체에게 손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제: 공기, 물, 생태계, 소음, 숲, 습지, 쓰레기, ESSD 등 16개 주제

○ 활동대상: 유치원생, 초동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 관련교과: 과학, 국어, 수학, 사회, 도덕 등 10개교과

○ 활동시간: 30분, 1시간, 2~3시간, 3~6시간, 하루이상

○ 활동장소: 실내, 실외, 하천, 교내, 교외, 가정 등 13개 활동장소 등

군포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

경기도 군포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3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토양환경단기교육 안내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토양환경단기교육이 지난 1월 28일에서 30일까지 농업기반공사 교육원에서 열렸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인천시 남동구는 1월 한달간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되는 소비·유통건물로 시설물 기본현황, 건물용도, 면적, 용수, 연료사

용량 등을 중점 조사했다.

구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오는 3월 올해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방침이다.

국립생물자원관 2007년 건립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생물자원의 주권을 지키는 역할을 할 국립생물자원관(조감도)이 2007년 개관된다.

환경부는 최근 총사업비 6백62억여원을 들여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의 대지 2만평에 국립생물자원관을 200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오는 4~5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생물자원관의 규모는 연면적 8,336평, 지상 4층 지하 1층이다.

2004 서울 환경작품 공모전 공고

서울시는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관한 시민의 관심을 드높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제9회 서울환경사진공모전』, 『제6회 환경포스터공모전』, 『제4회 환경일러스트레이션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4. 26(월)~4. 30(금)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청 별관1동 환경과다.

(사)하천사랑운동 나포식자들 보호활동 적극

군산시 나포식자들의 조수보호구역 철새보호활동에 시민단체가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 금강철새조망대 개관으로 탐조객들이 급증하면서 금강호 주변 탐조객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철새들을 쫓고 있어 시민단체 및 지역탐조동호인들이 적극적인 철새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등은 그동안 금강호 주변에 철새들의 종류 및



개체수가 늘어나자 나포식자들(1백20필지)을 집단 도래조수보호구로 지정(97년 1월)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환경부의 종다양성관리계약 제도 도입 등 국내 최대탐조지역으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생태관광지로의 정착 시도와 달리 현장에서 철새보호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로 조수보호구역인 나포식자들 금강제방 아래의 통로를 포장, 지방도로의 원나포와 공주간 구간을 연결시킴으로써 차량통행이 증가됐을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여 탐방객들이 철새도래지 중심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진입, 사진촬영을 하는 바람에 철새보호활동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인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장 보건서기관 이기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12.31 대통령령)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 서기관 박재성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근무를 명함 ▲낙동강유역환경청 보건서기관 박영석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환경청 공업서기관 허만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장에 포함 ▲낙동강유역환경청 공업서기관 박운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장에 포함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행정사무관 신동인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실 근무

환 · 경 · 계 · 소 · 식

를 명함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행정사무관 조명현, 수질보전국 유역제도와 행정사무관 이학구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행정사무관 김대만,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 환경사무관 김정환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근무를 명함 ▲수질보전국 산업폐수와 환경사무관 오일영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근무를 명함 ▲기획관리실 정보화(담) 행정사무관 노희동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근무를 명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환경사무관 임성재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 근무를 명함 ▲원주지방환경청 행정사무관 권영상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근무를 명함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환경사무관 이경천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근무를 명함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환경사무관 김태식 수질보전국 산업폐수와 근무를 명함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환경사무관 최병권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근무를 명함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행정사무관 최형욱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근무를 명함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환경사무관 홍동곤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근무를 명함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 행정사무관 강창원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근무를 명함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환경사무관 이강석 국립환경연구원 근무를 명함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환경사무관 김영진 낙동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전주지방환경청 환경사무관 이창호 원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 행정주사 박은추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환경주사 전종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 환경주사 김경구 원주지방환경청 행정주사 정문영 낙동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주사 유종열 영산강유

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환경주사 홍성우 원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주사 백운봉 대구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 행정주사 이용주 전주지방환경청 근무를 명함(1.12 환경부장관) ▲환경부(강원도 파견) 환경서기관 심무경 강원도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2004.1.14-2005.1.13)(1.14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사무관 정진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2004.1.19-2006.1.18) ▲환경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환경사무관 이운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근무를 명함(1.19 환경부장관)

강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획득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본청 및 도정 서비스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고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에 따르면 ISO 14001은 지난 96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환경경영체제에관해 제정한 국제규격으로 기업 등 조직체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발전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생산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운영 체제이다.

제천시, 하수 처리 전국 최우수

충북 제천시가 환경부의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천시는 지난 12월 31일 2002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원주지방 환경청의 1차 평가와 환경부의 2차 평가에서 2그룹(1일 처리량 3만~10만)인 전국 34

개 하수도 처리장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하수도 행정을 비롯, 하수관거 정비, 하수 처리시설 운전, 관리, 하수 슬러지 관리, 하수도 시설 선진화 등 모두 5개 분야 31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해경, 해양환경 1일 명예교사제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미래 해양환경의 파수꾼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해양환경 1일 명예교사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활동상 및 홍보비디오 상영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주요 해양오염 원인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해양환경 사진(해상사고, 환경오염, 방제작업, 오염피해)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문의: 061-555-5050).

구의원 쓰레기 단속 공무원에 비행기표 선물

현역 구의원이 불법쓰레기 단속을 성공적으로 벌여온 구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 왕복 비행기티켓을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인천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이 의원은 지난 해말 인천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율

이 가장 높은 동구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단속을 통해 동구의 불법 쓰레기투기율을 현저하게 낮추는데 앞장선 청소과 공무원 2명에 대해 부부동반 제주도 왕복비행기표를 선물했다. 그는 또 1명의 공무원에게는 일본 쓰레기 문화 시찰을 위해 일본행 왕복 비행기표를 선물했다. 물론 티켓 구입경비는 철저히 개인돈으로 충당했다.

안산시, 명예환경통신원 모집

안산시는 지역환경의 파수꾼으로 헌신 봉사하실 수 있는 시민을 안산시명예환경통신원으로 모집했다.

안산지역 거주자로 지역환경보전등에 관심이 있으며 실제 활동에 참여가능한 대상으로 앞으로 ▲지역환경보전활동 및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환경관계 여론의 수렴 및 건의 ▲지원제도 ▲환경분야 선진시설 견학 등의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환경 교과서 韓·中·日 함께 쓴다

"숲 속에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목재회사 사람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벌목꾼으로 취업하면서 살림살이가 넉넉해졌습니다. 1년 뒤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나무가 많은 이웃 마을에 목재회사 사람들이 나타나 나무를 베려고 했습니다..."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환경 관련 교사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초등학생용 "환경 교과서" 시험본에 나오는 글 중 일부다. 시험본 교과서 "황사발생의 원인과 예방법"에 나오는 이 글은 이웃 동네의 벌목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토록 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